

[잠수병] 열다섯 나이에 뛰어든 바다 힘든 물질에 남은건 족쇄 같은 잠수병

등록 : 2005년 10월 09일 (일) 20:20:05
최종수정 : 년 월 일 (월)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일시에 긴 파람으로 숨을 토해내니, 그 소리 비장하게 울적여서 수궁 깊이 스민다”

조선 정종 때 신광수는 「석북집」(石北集)에서 잠수의 광경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했다.

매서운 엄동설한에도 무는 매기를 매기구덕에 실어두고 한숨 들이마신 뒤 뛰어드는 바다물질, 숨쉬러 올라오면서 고요했던 바다는 갑자기 숨비소리로 충만해진다.

세종조 기건(奇虔) 목사가 눈보라가 하늬바람에 얹혀 매섭게 휘몰아치던 날, 순력에 나섰다가 엄동설한에 여인들이 무리지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그네들 손으로 잡아 물리는 전복이나 소라 따위를 일절 먹지 않았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잠수들은 한달에 10~12일 정도 물질을 나간다. 물질은 물때에 맞춰 시작되는데, 제주 속담에 ‘물싼 때 랑 나비잠자당 물들어서 돛바리 잡나’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썰물 때는 그럭저럭 지내다가 밀물에 바다에 뛰어들어 일을 한다. 여기에도 파도까지 치면 힘든 정도를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너울이 심하면 전복이 눈앞에 있어도 울렁거려서 잡을 수가 없다.

그래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바다를 뛰어드는 잠녀들의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하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 잠녀/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추운날 무더운날 비가 오는날/저 바다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아침 일찍 집을 떠나 어두우면 돌아와/어린 아기 젖먹이멍 저녁밥 진자/하루종일 해봤으나 번 것이 없어/살자하니 한숨으로 잠뫂이룬다’

제주 여성의 강인한 힘은 이같은 고통의 산물이리라.

하지만 그런 노력과 인내의 결과로 그네들에게 남은 것은 ‘잠수병’이라는 족쇄뿐이었다.

머리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내선’이나 감기약 같은 것을 무턱대고 먹는다. 잠수 복지정책이라며 이곳 종합병원에서 특수진료를 시작했지만 언감생심 완치는 꿈도 못꾼다.

잠수병도 옛날 무명으로 만든 속곳을 입고 바다로 들어갔던 잠녀들에게는 생각도 못했던 일.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잠수복을 입으면서, 잠녀들에게 잠수병은 지병이 되었다.

바다에서는 체온이 금방 떨어져 요즘은 모두 검은색 방한 잠수복을 입고 있다. 양성부력을 음성부력으로 바꿔주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장비는 납 벨트. 해녀들은 보통 10~20kg에 육박하는 납 벨트를 허리에 두른다. 그래야 바닷속에서의 활동이 자유롭단다.

숨비소리에 실어 보낸다고는 하지만 깊은 바다에 들어갈수록 온몸으로 느껴지는 수압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다보니 매년 잠수할 때마다 손에 쥐는 두통약과 진통제, 위장약의 양이 늘어가기만 한다.

잠녀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잠수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채집물의 현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이다. 1년에 한 번 돈이 들어오는 당근 농사, 굴 농사 등과는 달리 잠수해서 채집한 해산물은 그 날 바로 넘겨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생계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한다.

시간이 돈인 해녀에게 폐활량은 곧 돈이다.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다. 한번 들어가서 바닥에 도달하는 데에만 10~15초가 걸리고 목표물을 찾는 데 30초 이상, 목표물을 따고 그물망에 넣는 데에 20초가 걸린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 물 밖으로 올라오는 데 필요한 숨을 남겨 놓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숨이 부족하면 물 속에서 기절할 수도 있다. 뇌가 호흡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산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뇌가 호흡 명령을 내리는 데도 불구하고 숨을 계속 참고 있는 것을 '초과호흡'이라고 한다. 초과호흡이 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사람은 곧바로 기절한다. 잠녀들 중에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전복을 잡으려 초과호흡을 계속하다 수면을 1~2m 남기고 물 속에서 기절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질이 하도 지긋지긋 허영(물질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자식에게는 바닷 저끄티도 오지 말랜 해주(자식들에게는 바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

생과 사를 넘나들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힘든 일을 대물림하기 싫어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조업중 사망원인 1위 도내 치료시설 없어
도, 복싱가압 챔버 내년 제주의료원에 설치

1966년 2만3000여 명에 이르렀던 잠녀는 1970년 1만4143명, 1980년 7804여 명, 1990년 6470명에서 지금은 5650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60세 이상이 전체 55.5%를 차지해 10년 뒤에는 얼마나 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업에서 은퇴한 잠녀들을 포함할 경우 그네들의 수는 1만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1000명이 넘는 잠녀가 작업때 반복되는 급격한 기압차로 인해 만성두통과 관절통, 난청 등 잠수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조업중 사망하는 잠녀의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잠수병'이 지목되고 있지만 도내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치료용 챔버)를 갖춘 잠수병 전문병원은 없는 실정이다.

챔버는 캡슐 형태로 몸안에 축적돼 있는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체내에 산소를 주입해 질소를 배출토록 하는 고압산소요법 치료용기로 크기에 따라 1명에서 30명까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4~5인용 복실 챔버의 경우 구입비가 6억원 정도로 국내에는 5기압 이상 가압이 가능한 치료용 챔버는 5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치료용 챔버를 갖추고 있는 국내 병원은 2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런 사정으로 도내 해녀들은 잠수병 치료를 받기 위해 부산이나 통영에 있는 전문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챔버 이용때 1회당 5만~7만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등 체재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한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잠수병의 경우 항공편 이용 때 목숨을 잃을 위험도 높은 등 치료시기를 놓칠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이들 잠녀들의 지원을 위해 도는 내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최대 7기압 유지하고 한번에 5명(1일 5회 가동시 25명)치료가 가능한 복실가압 챔버 시설을 제주의료원에 갖추게 된다.

관절염이나 두통 등 잠수병의 고질화를 막고 일시적인 약물치료로 야기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잠수병 치료의 근원적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특별취재반>